

오피니언

光日春秋

한승헌



미테랑 대통령과 시라크 총리가 각기 사회당과 보수당을 이끌고 기형적인 동거 정부를 꾸려가고 있던 1990년대의 이야기. 미테랑이 이런 자화자찬을 하였다. "과거에는 출산율의 저하로 고민했는데,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한 후에는 출산율도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보수파의 시라크 총리가 아주 잠깐 반박을 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출산율 상승은 사회주의의 성과라기보다는 프랑스 국민 개개인의 노력의 성과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개개인의 노력"이란 표현에 주목해야 할

증 평가할 수 있는 내신과 수능성적이 다름 아닌 그 자신의 말과 해설에 의해서 채점된다.

나는 그를 자신을 위해서 뿐 아니라 그들의 연행에 오염되어 사고와 언어생활에서 건강성을 잃어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 선거 후보자(그 지방자 포함)들에게 일정 기간 언어교육을 시킨다. 둘째, 선거과정이나 의정생활에서의 발언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반칙을 통고하거나 공개한다. 셋째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민주시민에 합당한 언어교육과정을 받게 한다. 넷째 저질 발언을 삼습적으로 일삼거나 음해성 발언으로 한몫 보려는 후보를 가려 내어 정계에서 도태시킨다.

한 야당의 유력한 경선후보들 사이에 여론조사 설문사항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를 놓고 서로 마무리가네다. 당에서 내놓은 절충안 "누구를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양면에서 모두 손사래를 찜는다. 자기네 이해에 직결되는 표현에는 이처럼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이 회화적이다.

평소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처럼 한 마디 한 마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후보야말로 민주사회에 합당한 지도자로서 알맞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법무법인 공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구’만 아는 정치인의 언어수준

리: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래요? 의원: 어디에다 대고 신경질을 부리느냐? 부총리: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말라.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 정치판에는 음해와 막말이 횡행한다. 상대정당과의 본선도 아닌 집안끼리의 예선 리그에서 저렇게 치고받고 해서야 패자가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를 도와줄까 하는 걱정마저 든다. 심지어 당 대표가 "사생활의 비방은 말라"고 호소한다. 어떤 일간지의 '후 갈리게, 차 터지게'라는 기사 제목이 지체부자유자라 하여 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그것은 '빅 뉴스'다. 특히 지체 부자유자들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태도, 마음 가짐은 한국이 제발 미국에서 수입해 왔으면 하는 것 중 하나다.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다. 부자유자를 보면 서로 먼저 도우려고 한다. 그들을 먼저 배려하기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한다. 휠체어 탄 사람이 길을 건널 때면 모든 차량은 정지해 기다리고 신호등

미를 알 수 있는 말이다.)

도대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인물이라면, 식견과 도량, 신념과 교양, 품격과 신뢰감 등 여러 면에서 무언가 남다른 데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검증 평가할 수 있는 내신과 수능성적이 다름 아닌 그 자신의 말과 행실에 의해서 채점된다. 그런데 적어도 말의 품격에 관한 한 우리 정치인들은 낙제 근처의 수준이다. 그렇지 않은 극소수를 예외하는 뜻에서 '대부분'이라는 말을 붙여 주자. 도대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인물이라면, 식견과 도량, 신념과 교양, 품격과 신뢰감 등 여러 면에서 무언가 남다른 데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돼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7년 2개월여만에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것이다.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재개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분단 반세기만에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향한 대장정의 서막을 열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은 화해와 협력관계를 더욱 구체화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큰 결실들이었던 북핵문제가 핵시설 폐쇄 단계를 넘어 불능화로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회담 성과에 따라서는 6자회담의 성공적인 진행 등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1차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김 위원장의 답방 형식이 되지 못하고 평

양에서 열리는 것은 아쉽다.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 번영 및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마지막 남은 동서 냉전체제의 상징이자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민족 모두의 사명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다. 남북이 준비접촉을 통해 회담의제를 정하기로 했지만 북측에 끌려가선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정치권도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선 대선정국을 앞두고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성공할 수 없다. 당리당략을 떠나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남쌀 수도권 시장 이미지 개선 시급하다

전남도가 올해 초 수도권 쌀 시장 공략을 위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쌀 판매 매니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전남쌀 판매를 위해 쌀 판매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82명의 매니저를 채용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남는 47명이 중도에 그만 뒤 현재 활동 중인 매니저는 35명에 불과하다. 매니저 제도가 전남 쌀 수요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쌀 판매 매니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남쌀에 대한 수도권 소비자의 호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미 등 타지역 쌀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품질이 뒤떨어지는 저가 쌀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수도권 소비자에게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전남쌀은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

가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 최우수 브랜드 쌀 12개를 선정하는 브랜드 쌀 평가에서 지난 2003년부터 4년 연속 최다선정됐다. 품질면에서 타지역 쌀에 결코 뒤지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그럼에도, 수도권 소비자에게 여전히 저품질의 저가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남도 등 전남지역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들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남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맞춤형 계약재배 확대, 평생고객 확보, 대형 유통업체 고정 입점, 보험회사 방문판매방식의 다양한 관행행사 전개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국내 최대 쌀 소비처인 수도권을 공략하지 않고서는 전남쌀의 활로를 찾을 수 없다. 전남도는 수도권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전남쌀이 제대로 평가받고, 판매될 수 있는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계적으로 부자가 늘고 있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메릴린치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의 백만장자는 950만명으로 전년도보다 8.3%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백만장자도 9만9천명이나 늘었다.

정보통신 혁명에 의한 부가가치의 양적 증가와 세계시장 통합 등으로 첨단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이들이 백만장자로 등극하면서 부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익에서 수십억대 연봉을 받는 '보급쟁이 부자'들도 백만장자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백만장자가 늘면서 부자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메릴린치 역시 금융자산이 아니라 순 금융자산을 토대로 백만장자를 정하고 있다.

부자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몇 백만 명이 있는 가 하면 엄청난 부를 쌓고도 남과 비교해 보며 늘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뉴욕 타임스는 '부자라고 느끼

지 않는 실리론 벨리 백만장자'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캘리포니아 주 실리론 벨리에서는 순 자산이 수백만 달러가 넘어도 여전히 주 70시간 이상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계급 백만장자'(working class millionaires)'가 많다는 것이 뉴욕 타임스의 분석이다. 주변에 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자산가들도 손에서 일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부자가 되기 위한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27억 원 이상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 년 전 10억 만가치 열풍이 불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기준치가 높아진 셈이다.

30여년간 부자들을 연구했던 토마스 스타리 박사는 미국 백만장자 1천300명을 조사해 정직과 근면 절제, 원만한 인간관계, 배우자 내조를 성공 비결로 꼽았다. 시대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더라도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김재철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부자의 기준



기고



신종해

농경사회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생활이 곧 위·아래를 구분하는 삶이었다. 방에 앉을 때도 순서가 있었다. 아랫목은 가장 어른의 자리이고 다음 순서를 차례로 자리가 정해진다.

상차림에 있어서도 어머니께서는 어른의 그릇에 가장 먼저 밥을 담으셨다. 승용차에 오를 때도 그러하였고, 담배는 어른 앞에서 감히 피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거치면서 아노미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부모의 역할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요즘 중고등학교는 여류방학 중이다.

내드린다든지 명절 때 효도선물을 하는 모습들이 그 사례들이며 각종 시상식에서 최고상과 금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누구와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은가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다고 한다. 굳이 효도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다.

더운 여름에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한 학생들도 성적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부모님께 죄송스럽다고 말하고 성적이 오르면 부모님께 자랑한다. 말리는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부모님

효도(孝道) 하면 성적도 오른다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출발고(出發告) 반발면(反必面)"이라고 이야기한다. 외출할 때는 누구와 무엇을 하고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를 말하고 돌아와서는 누구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를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을 때는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자녀들의 교우관계를 알 수 있고, 둘째, 자녀의 비상시 연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부모와 자녀간에 이 정도의 관심과 접촉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녀를 또한 '부모님이 주신 품은 터럭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의 마음에는 호응하는 정서가 깔려 있다.

부모님 회갑이나 칠순 때 여행을 보

그들에서 자라는 시기만큼은 부모님에게 자람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게 바로 효도인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효도는(어른을 공경하고 편히 모시는 일) 쉬운 일이 아니다.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이후 새끼가 다 자라면 먹이 사냥에 힘입어 부친 어미를 먹여 살린다는 의미의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 까치는 길조로, 까마귀는 흉조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반드시 까마귀에게 분발아야 할 성성이 '효(孝)'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어른과 아이들의 역할이 희미해진 오늘날 젊은이들과 효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광주여지고등학교 교감〉

대학 편입학 시험 토익·토플 전형은 불합리

대학 입시 한 번 뿐이 그 결과만으로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명도가 좀 낮은 대학에 가 각종 자격증을 따는 등 실력을 갖추긴 하지만 명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좀처럼 취업 문을 열여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지방대 학생들이 공여지책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편입학이다.

하지만 현재 대학별로 치르고 있는 대학 편입시험에서, 거의 모든 대학들은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영어시험으로 전형형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입시험은 합리적

이지 못하다. 이미 토익의 경우 기업체 입사 시험 등에서도 그 효용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고, 토플 역시 회화능력 측정 문항이 추가되면서 말하기 능력을 중요시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화과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 대학들은 공인영어시험 반영보다는 수험생들이 입학 이후에 실질적으로 배운 화과공부, 전공 성적을 기준으로 편입시험을 치러주기 바란다.

▲주연실·광주시 동구 신수동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24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구할' 예전 흔히 보던 구인 광고 내용이다. 미국 변호사들이 보면 가장 좋아할 광고다. 그 회사를 고소하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광고 전체가 법에 저촉된다. 직원을 채용 할 때 나이·건강·학력·결혼·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같은 구인 광고가 미국 신문에 나타났다 CNN 등에서 하루 종일 보도될 것이다. 미국에는 장년퇴직이라는 것도 없다. 나이가 많다고 퇴직 시키거나 취업을 거절한다면 큰 문제다. 50세 까지만 일

은 가장 중요시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간접적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직장들이 능력과 대인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되 어느 학교를 나왔는 지 하는 학력은 거의 따지지 않는다. 지체부자유자라 하여 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그것은 '빅 뉴스'다. 특히 지체 부자유자들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태도, 마음 가짐은 한국이 제발 미국에서 수입해 왔으면 하는 것 중 하나다.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다. 부자유자를 보면 서로 먼저 도우려고 한다. 그들을 먼저 배려하기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한다. 휠체어 탄 사람이 길을 건널 때면 모든 차량은 정지해 기다리고 신호등

합리, 효율, 철저한 인권의식 수입하자

하던, 100살 까지 하던 자신의 자유다. 다만 미국의 경우 누구나 65세가 되면 정부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 다른 수입이 추가되면 그만큼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스스로 퇴직을 하는 것이 아무도 퇴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때도 일을 하고 싶으면 병원·도서관·학교 등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한다. 그런 곳에 유독 노인 일꾼들이 많은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등하교시 교차로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원 봉사자 들이다.

입사 취업신청서에 생년월일·성별·인종·학력·종교·건강상태 등을 적는 난은 아예 없다. 다만 그 회사에서 필요한 영역의 과거 경력이나 면허증 소지여부 같은 것은 물을 수 있지만 학력 자체를 물을 수는 없다. 대신 반드시 적는 항목은 이전 직장들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또 왜 옮겼는지, 책임자의 연락처 등

을 볼 수 없는 맹인을 위해서는 음성 신호를 들려준다. 건축물이나 도로 건설도 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엄격하게 적용토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일을 경험하다보면 버스에 먼저 오르려고 어린이나 노약자를 밀쳐내는 예전 우리네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여러 생각이 떠오른다. 정말 복 받은 나라라는 생각마저 갖는다.

이중성도 있다. 좁은 용당이에 빠진 고양이 한 마리를 구출하기위해 비싼 구조물을 띄어내거나 물에 떠내려가는 말 한 마리 살리기 위해 온 소방대원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되고 TV로 생중계하는 생생 중시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미군기의 무차별 폭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전쟁터 뉴스 장면을 내보낸다. 또 흑인 청년을 죽인 사람이 정당방위 무죄로 되어 버섯이 활보하고 다니는데 내 집 강아지에 발길질 했다고 6개월간 감옥살이를 한다. 이중성을 지닌 미국 사회의 아이러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공중도덕 수준 한심

공공도서관 열람실에서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떠드는 이용자들이 많아 열람실 내면학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열람실 안에서 큰 소리로 웃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거나 공부할 하는데 이어폰 밖으로도 음악 소리가 들릴 정도다. 열람실 밖에서는 여성들의 하이힐 소리가 크게 울린다. 가족 단위로 책

을 읽겠다며 도서관을 찾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부모들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시끄럽게 떠들다가 감쪽관에게 제제를 받아 기본나빠 하는 것보다 주위를 둘러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한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 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 F A X 227-0118 >
편 집 부 2200-629 문화성황부 2200-626 < F A X 227-9500 >
경 제 부 2200-617 여문체부 2200-628 < F A X 227-9500 >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 F A X 222-4267 >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업 2 부 2200-552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